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valuating the Effects of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장성진<sup>1)</sup>, 오현아<sup>1)</sup>, 손기화<sup>1)</sup>, 조성준<sup>1,2,\*)</sup>

S.J. Jang MSW, H.A. Oh MSW, K.W. Son MSW, S.J. Cho MD, Ph.D

####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 2018년 3월, 4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참여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를 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2008년)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정신장애인분야 간편형)를 교육 전후 동일하게 실시하고 spss 24.0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교육의 성취도, 키워드 등 보다 다양한 효과성평가를 위해 교육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키워드는 의미연결망분석으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실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는 사전대비 0.37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균은 4.39점/5점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이해', '기본권', '인권식탁'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요용어**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 인권감수성, 인권식탁, 의미연결망 분석

#### Abstract

- **Objective** :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affects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changes in their values and attitude on the human rights advocacy.
- **Methods** : In March 2018,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held for 78 persons 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who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training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April, 2018. First of all, we used the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tool (Mental disorder person-simple type) develop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understanding human rights, their value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ook place. After that, a paired sample t-test was performed in SPSS 24.0.
-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and afterwards,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values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were improved by 0.37 points. Thus,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was 4.39/5 points. The keywords of education suggested by the researchers were the 'understanding', 'fundamental rights', and 'the table of human rights' in order.
- **Conclusion** :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found to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europsychiatry)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sjcho0812@hanmail.net)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anging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specifically their values and attitude towards human rights advocacy. This suggest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ose who work at mental health facilities.

- **Keyword** :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i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values and attitude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table of human rights, semantic network analysis

## I. 서론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편성(universa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도덕성(morality), 우선성(priority)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이정아 외, 2015).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권의 본질적 특성이 제대로 보장되거나 충분히 경험되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권조약을 제정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은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현에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다(이성훈, 2010).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장받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다. 특히 정신장애와 관련해서는 1997년 정신보건법 제정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고, 2008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인권교육을 운영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인권교육 강사양성을 통해 체계를 만들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향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보다 인권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4)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처음 의무화 한 2009년에는 75.3%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67.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참여율 감소의 주요인으로 반복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흥미저하를 꼽았다. 또한 제도화된 인권교육의 내용과 기준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무인권교육의 방법과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권관련 주제선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하유정(2013)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인권을 보장하는 실천에서는 낮게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함에도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석권(2013)은 피진정인 대상 강의식 인권교육이 인권 피해자적 관점에서 그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인권보호 및 향상의 객체로 전제하면서 교화식 교육으로 흘러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존중감을 침해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고,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인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 서비스 제공'이다 보니 많은 인권교육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침해 현황,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전략, 환자의 사생활 자유, 격리강박 등 정신질환자를 만나는 상황에서의 인권으로만 다뤄지기 쉽고 특정 대상에 국한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폭넓은 가치, 태도, 실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사자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며 그를 기반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가 인권친화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9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연1회(4시간)의 제한된 교육시간, 의무교육에 따른 참석자의 동기저하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신질환자를 만나는 현장에 국한되는 인권이 아닌 일상에서 인권친화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에,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워크북 「인권식탁」을 2017년에 개발하였고, 이를 모티브로 기본권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구성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인권교육과 워크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주제 및 워크북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식탁」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며 인권문화 증진 및 인권침해 감소를 통한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인권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등 2018년 기준으로 8개 기관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주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의식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존중 및 보호’, ‘영화로 보는 인권’, ‘인권감수성 훈련’ 등으로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한계점으로 제시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의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인권이라는 가치를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교육은 그 효과성, 즉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쉽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인권교육 참여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이혜원 외, 2010). 따라서 인권교육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동안 인권침해라고 느끼지 못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인권침해로 인한 결과를 지각하고,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지각하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게 된다(문용린, 2003). 이러한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은 인권관련 상황을 접할 때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타인이 인권침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며 그 상황에 대한 개선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는 것(박진옥, 2014)을 말한다. 이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자기존중에서 타인존중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태도와 인권옹호행동실천력이 향상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이혜원 외, 2010), 인권문제를 자신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권에 대해 배우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인권교육도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재호, 2008).

## 3.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 1) 목적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 2) 대상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3) 개발 및 운영

인권의 최소한이며, 국가 질서 속에서 구체적·현실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2018년 개발하였다. 밥(인권)과 인권식탁(모두가 충분한 인권을 누리는 사회)을 비유로 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강의와 동영상, 퀴즈, 게임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메시지 카드 등을 통해 교육 후에도 인권옹호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내부 시범운영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2018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으로 계획된 총5회의 인권교육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구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은 총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권식탁」 프로그램 구성

구분	내 용	세부 내용
도입	밥과 인권	•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답게 살수있도록해주는최소한의것 → 밥=인권
인권의 중요성 인식	인권과 기본권	• 헌법에 보장된 인권 • 기본권의 이념과 가치, 종류 • 일상에서의 기본권 살펴보기(동영상, 퀴즈)
인권의 경험·실천	인권실천요소	• 나에 대한 이해 • 타인에 대한 이해 • 실천하는 힘
	인권실천연습 (그룹별 활동)	• 인권마블게임 - 기본권 및 인권실천요소에 대한 이해 강화, 적용 - 인권보장 및 침해, 차별에 대한 간접경험  • 인권식탁 차리기 및 나누기 - 인권의 관계성과 상호성 이해
마무리	실천 독려	• 인권실천의 중요성(동영상) • 「인권식탁」 워크북을 활용한 인권감수성 유지 • 인권 메시지 카드를 활용한 인권실천의 시작

## 4. 의미연결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한 것으로서 텍스트 내에서 메시지를 형성하는 단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Wasserman & Faust, 1994). 단어의 빈도를 구하는 것과 함께 사용되며 문장 속에서 단어들이 어떠한 구조를 지니며 패턴과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관계의 형태 속에서 흐르는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분석할 수 있으며(한관중, 2003), 핵심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통해 관계를 파악하고 시각화하여 지식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성수, 김정기, 2012).

어떤 개념을 파악할 때 단어는 노드(node), 단어들의 연결 관계는 링크(link)로 연결망을 만들어 표현하는데, 의미연결망은 밀도, 중심성 등의 지표값을 적용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정도를 개수로 표현한 것으로 노드간의 연결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네트워크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심성(centrality)’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드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개념을 의미한다(문소윤, 2018). 중심성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강보라, 2015).

### 1)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한 점이 다른 점들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 하는 것으로, 한 점이 주위의 다른 점들과 직접 연결된 정도가 높을수록 전체의 연결구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심성이 높아진다.

### 2)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한 점이 얼마나 다른 점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중개자 혹은 다리(bridge)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는 개념으로, 중개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중심’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가진다.

### 3)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한 점이 다른 점에 얼마만큼 가깝게 있는가를 고려한 개념으로, 다른 점들과 가깝게 있다면 그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 4) 아이겐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연결된 점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사회연결망 구조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강자와의 단 하나의 연결을 하는 것이 다른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성이 높은 다른 노드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성취도 및 키워드 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였고 키워드는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2018년 3월, 4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집교육의 형태로 운영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참여한 서울지역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80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가 수거된 78명으로 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서울지역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공문 발송
- 2) 블루터치 홈페이지(https://blutouch.net)를 통해 사전 교육 신청(선착순 40명 마감)
- 3) 교육 당일 참석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독려

- 4) 연구 참여에 동의한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전 사전 설문지 배부 및 작성 안내, 작성 후 수거

- 5) 「인권식탁」 교육운영

- 6) 교육 후, 사전 설문지를 제출한 종사자 대상으로 사후 설문지 배부 및 작성 후 수거

## 4.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 1)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 확인

국가인권위원회(2008년)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정신장애인 분야\_간편형)를 사용하였다. 4시간 이하의 인권교육에서는 간편형 적용을 권고하고 있어 공통문항 10문항, 특수문항(정신장애인분야) 20문항, 총30문항으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분야\_간편형을 사용하였다.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 = -2’ ‘약한 반대 = -1’, ‘약한 찬성 = 1’, ‘강한 찬성 = 2’ 4단계이고,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 =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 = 평균 0이하~-1.5 이상’, ‘약한 옹호 =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 = 1.5 이상’으로 설정되어있다. 집단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여 변화를 확인하며 정신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alpha$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858, 사후평가에서 .873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에 기반 한 데이터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검증하고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위해 모든 검증의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 2) 「인권식탁」 교육의 성취도 및 키워드를 통한 효과성 확인

인권교육 평가도구와 별개로 「인권식탁」 교육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새로운 지식습득, 적용가능성 등 교육의 성취도를 확인하고자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고 기타 평가는 내용별로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또한, 키워드의 의미연결망분석을 위해 먼저 코딩작업을 거친 후 조사, 접속사, 부사 등을 제거하는 정제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네트워크 프로그램(KrKwic, Ucinet6, NetDraw)을 사용하여 단어의 빈도수 도출 및 단어 간의 연결구조 파악과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는 총78명으로, 먼저 성별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19명 (24.4%), 여성 59명 (75.6%)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30대가 42명 (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8명 (23.1%), 40대 14명 (17.9%), 50대 4명 (5.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32명 (41.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 27명 (34.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7명 (9.0%), 정신건강간호사가 5명 (6.4%), 기타 (치료사) 4명 (5.1%), 간호사 2명 (2.6%), 임상심리사 1명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업무관련 경력은 5년 이상이 34명 (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21명 (26.9%), 3년 이상~5년 미만 18명 (23.1%), 1년 미만 5명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 수강경험은 3회가 31명 (39.8%)으로 가장 많았고, 1회와 2회가 각각 21명 (26.9%), 없음 5명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전체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명(%)/N=78)		
구 분	내 용	빈도(비율)
성 별	남	19(24.4)
	여	59(75.6)
연 령	20대	18(23.1)
	30대	42(53.9)
	40대	14(17.9)
	50대	4(5.1)
직 종	사회복지사	27(34.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2(41.0)
	간호사	2(2.6)
	정신건강간호사	5(6.4)
	임상심리사	1(1.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7(9.0)
경 령	기타(치료사)	4(5.1)
	1년 미만	5(6.4)
	1년 이상 ~ 3년 미만	21(26.9)
	3년 이상 ~ 5년 미만	18(23.1)
	5년 이상	34(43.6)
본 교육을 제외한,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 수강경험	없음	5(6.4)
	1회	21(26.9)
	2회	21(26.9)
	3회	31(39.8)

2. 척도를 통한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 비교

1)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 전체 비교

「인권식탁」 교육 실시 후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차이를 비교한 결과, 척도

범주 ‘- 2점~2점’에서 사전평균은 0.94점, 사후평균은 1.31점으로 나타나 연구참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가 평균 0.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평균의 차이에 대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곧 「인권식탁」 교육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간호사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한 연구(주효경 외, 2013)에서는, 인권감수성 훈련 전 평균이 0.6점, 훈련 직후(사후) 0.9점, 훈련 2주후(추후) 1.1점으로 변화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거나 본 연구의 향상 폭(사전-사후)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 사전·사후 차이검증

N	사전		사후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78	0.94	.51	1.31	.49	-8.401	.000*

\*p<.05

2) 척도의 인권 이슈별 비교

「인권식탁」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활용한 인권교육 평가척도는 다양한 인권이슈를 다룬 공통 10문항과 정신장애인 분야의 인권이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해당 척도의 인권이슈별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통이슈에서는 ‘장애인 차별’, ‘인간의 존엄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5), ‘인격존중’ 항목은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 분야의 인권이슈 중에서는 ‘외출의 자유’, ‘알 권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5), ‘외출의 자유’ 항목은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이슈와 정신장애인 분야이슈의 각 사전사후 평균을 살펴보면, 공통이슈는 사전 0.84점, 사후 1.20점으로 0.36점 향상되었고, 정신장애인 분야 이슈는 사전 1.04점, 사후 1.37점으로 0.18점 향상되어 정신장애인 분야 이슈보다 공통이슈의 향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의 사전사후 향상폭을 살펴보면, 공통이슈에서는 ‘소수의 권리(0.98점)’, ‘사생활 보호(0.82점)’, ‘법 앞의 평등(0.73점)’, ‘성적소수자 차별(0.48점)’, ‘연고에 따른 차별(0.36점)’, ‘이주노동자 차별(0.27점)’, ‘알권리(0.23점)’의 순으로 향상되었다.

정신장애인 분야의 인권이슈 중에서는 ‘기타: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1.14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0.4점)’, ‘적절한 식생활 보장(0.35점)’, ‘입퇴원 및 계속입원·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0.34점)’,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0.34점)’, ‘통신·의사소통의 자유(0.3점)’, ‘사생활보호(0.29점)’, ‘신체적 안전(0.25점)’, ‘여가 및 문화생활권(0.25점)’, ‘노동권(0.14점)’의 순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 이슈별 사전·사후 차이검증

(N=78)

인권이슈		사전		사후		t	유의 확률*	옹호수준 변화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전	사후
공통 분야	법 앞의 평등	.41	1.44	1.14	1.20	-5.36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연고에 따른 차별	1.28	1.03	1.64	.68	-3.47	.001	약한 옹호	강한 옹호
	이주노동자 차별	1.15	1.06	1.42	.93	-2.97	.004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성적소수자 차별	.62	1.39	1.10	1.22	-3.99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장애인 차별	.63	1.25	.87	1.25	-1.69	.095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인격존중	1.03	1.09	.51	1.41	2.73	.008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소수의 권리	-.47	1.29	.51	1.41	-5.85	.000	약한 반대	약한 옹호
	사생활 보호	.22	1.42	1.04	1.16	-4.91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알 권리	1.71	.66	1.94	.24	-3.38	.001	강한 옹호	강한 옹호
	인간의 존엄성	1.81	.55	1.83	.61	-.314	.754	강한 옹호	강한 옹호
정신 장애인 분야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88	.91	1.22	.88	-3.09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76	.86	1.16	.81	-4.52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신체적 안전	.25	1.22	.81	1.20	-4.70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적절한 식생활 보장	1.12	.85	1.47	.83	-4.03	.00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사생활 보호	1.46	.73	1.75	.48	-4.02	.000	약한 옹호	강한 옹호
	외출의 자유	1.30	.79	1.13	.83	1.49	.139	약한 옹호	약한 옹호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1.19	.96	1.53	.75	-2.86	.005	약한 옹호	강한 옹호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1.35	1.07	1.65	.73	-3.11	.003	약한 옹호	강한 옹호
	노동권	1.71	.66	1.85	.45	-1.99	.049	강한 옹호	강한 옹호
	알 권리	1.76	.64	1.79	.56	-.491	.625	강한 옹호	강한 옹호
	여가 및 문화생활권	1.17	1.10	1.42	.97	-2.21	.030	약한 옹호	약한 옹호
	기타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	-.43	2.68	.71	1.36	-3.94	.000	약한 반대	약한 옹호

위 결과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인권옹호수준으로 살펴보면, ‘연고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장’,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항목이 ‘약한옹호 → 강한옹호’로 변화되었고, ‘소수의 권리’, ‘기타(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 항목이 ‘약한반대

→ 약한옹호’로 변화되었다. 그 외, 눈여겨 볼만한 항목은 공통분야의 ‘장애인 차별’ 항목인데 ‘자신의 자녀가 정신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는 질문에 교육 전 0.63점, 교육 후 0.87점으로 모두 ‘약한 옹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 항목에 비해 교육 전, 후 평균점

수가 낮은 편이고 변화의 폭도 높지 않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정신건강영역 안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식탁」은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침해, 인권의 역사 등의 주제가 아닌 모두의 인권에 기본이 되는 기본권을 주제로 다루었고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 효과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식탁」 교육에 대한 성취도,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보고 범주화 및 키워드 분석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 3. 「인권식탁」 연구참여자 평가서 내용 분석

본 교육의 목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과정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옹호적 가치 및 태도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곧 일상에서의 실천과도 연결된다. 척도 분석결과 외에 연구참여자들이 평가서에 보고한 교육에 대한 성취도, 주관적 보고, 키워드 등은 위 목표와 관련한 「인권식탁」 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분석은 아래와 같다.

#### 1) 교육에 대한 성취도

「인권식탁」 교육 후 교육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성취도 분석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5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인권식탁」 교육은 인권의 여러 이슈 중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도는 4.53점, 새로운 지식습득은 4.32점, 실제 업무 및 일상적용에 대한 도움정도는 4.30점, 전체 평균은 4.39점으로 나타나 「인권식탁」 교육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상에서 기본권을 발견하며,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된 「인권식탁」 교육형태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 실제 적용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인권식탁」 연구참여자 성취도 분석

문항	성취정도
1. 인권_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4.53점
2. 인권_기본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다.	4.32점
3. 실제 업무 및 일상에 적용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4.30점

#### 2) 교육목표에 따른 연구참여자 보고

「인권식탁」 교육목표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평가를 범주화해보면 교육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밥과 식탁이라는 비유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인권감수성 및 일상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인권교육에서 많이 다루었던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종사자 자신의 삶 속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 역시 통제된 상황이 아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인권식탁」 연구참여자 보고 분석

구분	연구참여자 보고
인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li><li>· 지식으로 배운 내용이 게임에 잘 녹아있어 이해가 잘 되었다.</li><li>· 딱딱한 인권에 대한 내용을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li><li>·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서 인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li><li>· 삶에서 친숙한 밥, 식탁을 인권에 비유하여 인권에 대한이해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li><li>· 인권식탁이 기본적인 식사와 기본적인 권리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잘 되었다.</li></ul>
인권 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타인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 알게 되었다.</li><li>· 존중,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li><li>· 다른 사람들이 맞닥뜨린 인권이슈를 알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다.</li><li>· 인권과 식탁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li><li>· 연대, 인권의 기본</li><li>·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li><li>·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li></ul>
변화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li><li>· 인권을 아는 것뿐 아니라 용기를 내는 실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li><li>·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상생사례영상을 통해 인권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게 되었다.</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권교육 방법이 새롭다. 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이 새로워서 좋았다.</li><li>· 즐겁고 안전한 상황에서 체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li><li>· 게임을 통한 인권의 이해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도움이 되었다.</li><li>· 인권식탁 중 타인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여 아동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li><li>· 정신장애인과 함께 교육해도 좋을 것 같다.</li></ul>

#### 3) 교육에 대한 키워드 분석

##### (1) 키워드 빈도분석

교육의 핵심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참여자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 중 본인의 업무를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적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수집한 키워드는 총 87개였고 키워드 정제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14개의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이해(18.4%)’로 16번의 빈도수를 보였고, 이어 ‘기본권(14.9%)’이 13번, ‘인권(9.2%)’이 8번, ‘인권식탁’과 ‘실천’이 각각 7번으로 8.0%의 비율을 보였다. ‘평등’과 ‘이해’는 빈도수 2번으로 크게 의미 있는 키워드로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	비율(%)
1	이해	16	18.4
2	기본권	13	14.9
3	인권	8	9.2
4	인권식탁	7	8.0
5	실천	7	8.0
6	행복추구권	6	6.9
7	공감	6	6.9
8	존중	5	5.7
9	인권감수성	5	5.7
10	관계	4	4.6
11	용기	3	3.4
12	존엄	3	3.4
13	평등	2	2.3
14	소통	2	2.3

##### (2) 키워드 의미연결망 중심성 분석

교육 후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키워드 의미연결망 분석결과, 연결정도 중심성 값은 ‘이해’(12.0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기본권’(9.000), ‘인권식탁’(9.000), ‘인권’(8.000), ‘실천’(8.000), ‘공감’(8.000), ‘존중’(8.0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중심성 값은 ‘이해’(9.550), ‘존중’(5.583), ‘인권식탁’(5.350)의 순으로 도출되었고, 근접중심성 값은 각 키워드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평등’(22.000), ‘소통’(22.000), ‘존엄’(21.000), ‘용기’(20.0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이해’(0.39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권’(0.333), ‘인권식탁’(0.30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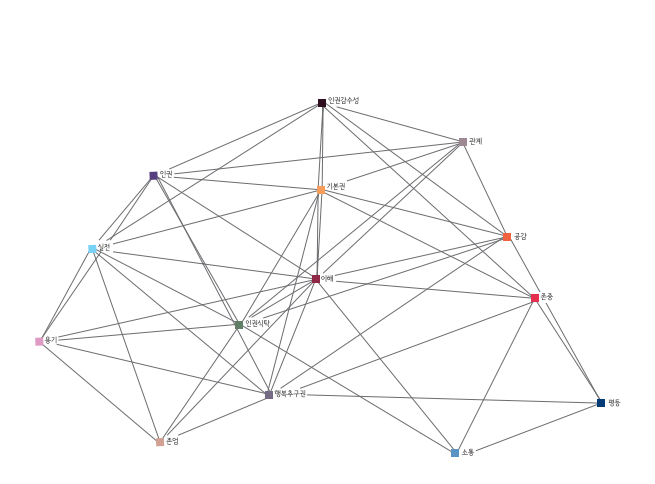
키워드 빈도분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이해’는 중심성 분석에서도 연결정도 중심성, 사이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임에 따라 「인권식탁」 교육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알 수 있으며, ‘기본권’과 ‘인권식탁’ 역시 여러 중심성 분석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권식탁」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인 ‘기본권’과 ‘인권식탁’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누리는 사회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중심성 분석 값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중심성 값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사이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1	이해	16	12.000	9.550	14.000	0.395
2	기본권	13	9.000	2.267	17.000	0.333
3	인권	8	8.000	1.850	18.000	0.298
4	인권식탁	7	9.000	5.350	17.000	0.307
5	실천	7	8.000	2.233	18.000	0.288
6	행복추구권	6	7.000	4.483	19.000	0.246
7	공감	6	8.000	3.283	18.000	0.280
8	존중	5	8.000	5.583	18.000	0.254
9	인권감수성	5	7.000	1.067	19.000	0.271
10	관계	4	7.000	0.750	19.000	0.273
11	용기	3	6.000	0.750	20.000	0.220
12	존엄	3	5.000	0.917	21.000	0.187
13	평등	2	4.000	1.000	22.000	0.117
14	소통	2	4.000	0.917	22.000	0.137

도출된 키워드 중심성 값을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인권식탁」의 핵심 키워드로 분석된 ‘이해’를 중심으로 총 14개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권’, ‘인권식탁’ 등의 키워드가 연결망 내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키워드 중심성 결과 시각화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2018년 3월, 4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집하여 운영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참여한 서울지역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식탁」 교육에 참여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는 ‘-2~2점’을 기준으로 사전평균 0.94점, 사후평균 1.31점으로 나타나 평균 0.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식탁」 교육이 연구참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척도의 인권이슈별 사전사후 변화는 공통문항 평균이 0.36점,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 평균은 0.18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보다 공통문항에서 약 2배의 향상을 보였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공통이슈에서 ‘장애인 차별’, ‘인간의 존엄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신장애인 분야의 인권이슈 중에서는 ‘외출의 자유’, ‘알 권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권식탁」의 주제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인권식탁」 교육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성취도는 총 5점을 기준으로 평균 4.39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기본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4.53점),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으며(4.32점), 이를 실제 업무 및 일상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4.30점)고 보고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주관식으로 기술한 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인권식탁」 교육의 목표인 인권감수성 향상, 이를 통한 변화와 실천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인권식탁」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총14개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이해’는 4개의 중심성 분석결과 중 3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기본권’과 ‘인권식탁’ 역시 2개 이상의 중심성 분석에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인권식탁」 교육의 핵심 메시지인 ‘기본권’과 ‘인권식탁’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며, 더 나아가 기본권과 인권식탁 실천을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이 전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더하여 향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구성과 관련하여, 「인권식탁」 교육 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식탁」 워크북을 배포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일상에서 인권실천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인권식탁」 교육과 워크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워크북 활용은 연구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후 제공되는 워크북 활용의 여부 및 정도가 교육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향후 「인권식탁」 효과성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실행되는 교육뿐 아니라 그 외의 요소들도 포함하여 보다 다각적인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효과성 검증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이기에 연구 설계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이면서 인권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또한, 교육 전후 척도검사 및 교육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평가 서로만 효과성을 확인하였기에 교육이후 연구참여자들의 인권옹호태도 변화정도 및 지속정도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였다. 인권교육의 목적이 지식습득을 넘어선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태도변화 및 실천이기에 이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효과성평가는 교육 후 1개월, 3개월 등 보다 장기적인 태도변화 및 지속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차후 인권교육 효과성 관련 연구 진행 시, 장기적인 태도변화 및 지속정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대조군 설정 및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주제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자발성과 높은 동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한된 주제로 연차 구분 없이 진행되다보니 몇 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다보면 반복되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또한, 2017년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현장 및 종사자들의 인권의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권의 역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침해,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의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인권식탁」 교육은 기본권을 주제로 다루었으나 그 외에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주제는 다양하기에 「인권식탁」 ver.2 등 종사자가 다각적인 시각으로 인권을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주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인권감수성의 주요 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성 검증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개발-실행-평가의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인권교육 개발과 근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교육개발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이 교육 전 · 후 활동이다. 사전활동은 교육에 대한 O.T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며, 사후활동은 모니터링, 지지, 강화, 보상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유지하고 실제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의무교육일수록 참여자들의 동기가 낮기에 연 1회(4시간)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버리기 쉬우나 인권과 관련한 다

양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며(사전활동), 워크북 및 메시지 카드, 정기적 모니터링, 변화에 따른 기관 내 지지와 강화 등(사후활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 「인권식탁」과의 차별성은 정신건강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점을 벗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인권주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모든 일상과 삶에서 인권을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참고문헌

강보라(2015). “교사학습동아리의 학습주제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선희(2015).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연구”. https://www.humanrights.go.kr/

김영로(2008). “중학교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충희(2003).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소윤(2018). “의미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한 태권도 선수의 슬럼프 인식구조 탐색”.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박상준(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115-141.

박진옥(2014).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민 · 이종국(2011).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및 인권감수성 평가”. 《사회정신의학》, 16(2):80-87.

이봉원(2014).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상희(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훈(2010).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2):215-252.

이재호(2008). “인권교육의 재정립과 실천방향 모색”. 《정신문화연구》, 31(3):333-362.

이정아 · 박희수 · 정희경 · 허주현 · 양규성 · 용태희(2015). 《전남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대처 매뉴얼》. 전라남도복지재단.

이혜원 · 이향란 · 유정은 · 이상애 · 장혜영(2010).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4):149-170.

장성수 · 김정기(2012). “제주지역 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0(-):351-381.

정선영(2006).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1):59-87.

조은아(2018).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효경 · 이광자 · 김현숙(2013). “인권감수성 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2(3):169-179.

하유정 · 채은희 · 양어진(201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 7(1):83-94.

한관중(2003).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 분석기법 적용의 의의와 연구과제-의미와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연구》, 10(2):219-23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4).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건강증진연구사업.

황주연(2015).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asserman. S. & Faust. K.(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